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2022년 전망 투자전략: 고진감래(苦盡甘來)

- 2022년 KOSPI Band 2,610 ~ 3,330p. 전약후강 패턴
- 2022년 매크로 환경 / 금융시장 전망의 Key : 공급망 병목현상 = 1Q 지나며 완화국면 진입 전망
- KOSPI 상대적 약세를 야기했던 달러 강세, 실적 불안은 하반기 변화 가능. ECB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 & 반도체 사이클 턴어라운드
- 투자전략 : 위드 코로나 수혜주(상반기) + 구조적 성장주, 수출주(1Q 이후)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Macro

2022년 전망 경제: Pandemic to Endemic

- 글로벌 경기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 성장폭은 소폭 둔화될 전망
- Endemic 시대에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코로나와의 공존으로 전환되는 한편,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디지털 시대로의 가속화
- 2022년 2분기부터 공급망 교란 해소 본격화, 인플레이션 상승폭 둔화 예상
- 미 달러화는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유로존간 통화정책 차별화로 내년 상반기 강세 예상, 이후 미국-非미국 간 경기 격차 축소,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가 점차 환율에 반영되면서 주요 통화 대비 약세 전망

이다은, daeun.lee@daishin.com

Fixed Income

2022년 전망 채권: 상방이 더 열린 금리

- 2022년 채권 금리는 상방이 더 열린 움직임을 나타낼 전망
- 미국의 테이퍼링 개시 및 기준 금리 인상 일정 구체화 등이 본격적으로 금리 동향에 반영될 것
- 물가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연간 금리 상승 압력이 부각될 것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Global Strategy

2022년 전망 글로벌전략: 안전지대(Safety Zone)를 찾아서

- 불안정한 투자 환경, DM/EM간 성장 불균형, 공급망 병목 현상, 신항국 긴축발작 재연 가능성 등 투자 난이도가 높아질 증시 흐름(상저하)
- 원활한 위드 코로나 시행과 경제 정상화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재정여력을 갖춘 상대적 안정성이 높은 투자처 부각될 전망
- 2022년 최선호 투자대상: 미국 / 권역: 선진국, 섹터&테마: 고배당, 성장주(I, H, E&B, A, M)는 중기적 관점에서 가격 조정시 마다 비중 확대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2022년 전망 원자재: Old와 New의 줄다리기

- 2022년 원자재시장은 Old(화석연료, 금)와 New(신재생에너지, 비트코인)의 줄다리가 지속될 것
- 상반기 전통에너지 부문의 공급 부족 지속으로 수급이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하며, 인플레이션 헷지 원자재와 농산물의 가격 상승이 기대
- 중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 구조 변화로 수혜를 받을 비철금속에 대한 관심이 필요

김소현. sohyun.kim@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2022년 산업전망

- KOSPI 상승 반전의 트리거는 물류병목현상의 완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 감소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의 상승 반전이 될 것으로 예상
- 2022년 투자 유망 섹터는 1)구조적인 성장이 담보된 산업, 2)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 완화로 생산 및 판매가 회복 예상되는 자동차 산업, 3)반도체 경기 하락 사이클 조기 종료에 따른 반도체 업종, 4)위드 코로나 및 정부의 경기부양(대선정국)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수 소비주로 예상
- 구조적 성장이 담보된 산업은 2차전지, 헬스케어, 인터넷 업종으로 추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과 유한양행, 그리고 NAVER를 선정
- 공급병목현상 완화로 수출 모멘텀이 예상되는 현대차와 반도체 업황 하락 사이클 조기 종료에 따른 수혜종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투자유망종목으로 선정
- 위드 코로나와 소비경기 활성화에 따른 수혜종목으로는 호텔신라와 F&F, 그리고 K-Contents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대표종목으로 스튜디오드래곤을 추천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고진감래(苦盡甘來)

2022년 KOSPI Range: 2,610 ~ 3,330p

- 상단 3,300p: 12개월 선행 EPS 현재 대비 -5% 하향조정 & KOSPI 적정 PER 12.2배 반영
하단 2,600p: 12개월 선행 EPS 수준 대비 -10% 하향조정 & 10년 평균 PER 10.1배 반영
- 2022년 1/4분기까지 실적 전망치 하향조정 지속,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국면 이어질 수 있음.
2/4분기부터 공급망 병목현상 완화와 함께 반도체 사이클 저점 통과로 실적 전망 상향 전환 예상.
물가 상승압력 정점 통과, 통화정책 부담 완화시 멀티플 확장 국면 진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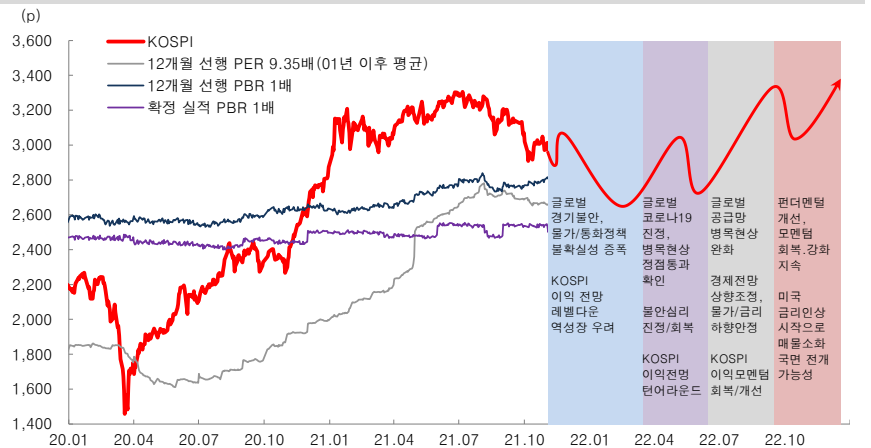
2022년 KOSPI 상저하고 패턴, 2022년 1Q가 비중확대 기회

- 2021년 연말 ~ 2022년 1분기까지는 KOSPI 변동성 확대, 지수 레벨다운 전망. 물가 상승 압력 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에 대한 실망감 유입 글로벌, 특히 미국 증시까지 하방 압력 확대 가능. KOSPI는 이익전망 하락으로 2022년 실적 역성장 우려까지 가세하며 미국 증시보다 부진한 디커플링 국면 심화 예상
- 경기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힌 상황에서 2022년 2분기부터는 가시적인 병목 현상 완화의 증거들을 확인하며 상승반전 예상. 물가 정점 통과와 함께 경기(특히, 제조업) 회복 기대 심리가 되실아날 것. 글로벌 펀더멘털 변화는 3분기까지 강해지며 한국 수출 호조, 기업이익 전망 상향조정으로 이어질 전망. 반도체 사이클 저점 통과도 KOSPI 상승 탄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변수
- 2022년 4/4분기에도 상승추세가 이어지겠지만, 미국 금리인상 여부에 따라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2022년 투자전략, 1H 내수 소비주, 1Q 저점에서 구조적 성장/수출주 Bottom Fishing

- 2022년 상반기 동안에는 내수소비주인 호텔/레저, 미디어, 음식료, 의류 업종 중심으로 대응력 강화. 대외 변수에 민감도가 낮고, 상반기 소비/이익모멘텀에 위드 코로나로 인한 실적 전망 상향 조정 가세할 전망
- 2022년 1분기 중에는 구조적 성장주(인터넷, 2차전지)와 수출주(반도체, 자동차) 비중 확대 제안. 공포심리를 기회로 활용하며 포트폴리오 베타(β)를 높여 2022년 하반기 상승추세에 대비

2022년 KOSPI 예상 경로, 상저하고 패턴으로 2022년 하반기 사상최고치 돌파 시도 전망



Macro

이디은 daeun.lee@daishin.com

Pandemic to Endemic

글로벌 경기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 성장폭은 소폭 둔화될 전망

- 미국은 서비스 소비 확대와 재고 축적 수요로 경기 확장세 지속하겠으나, 통화정책 정상화, 재정 효과 축소에 따른 가계 소비 여력 위축으로 성장폭 둔화 예상
- 중국은 정책 중심이 성장에서 분배로 이동, 5%대의 성장세 보일 전망. 시진핑 주석의 3기 연임을 앞두고 경기 하방을 지지하기 위한 재정 및 통화정책 강화 기대
- 한국은 G2의 성장폭 둔화와 높은 기저에 따른 수출 증가율 둔화가 예상되나, 위드코로나에 따른 서비스 소비 증가와 설비/건설 투자 확대로 3.1% 성장세 전망

Endemic 시대에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코로나와의 공존으로 전환되는 한편,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디지털 시대로의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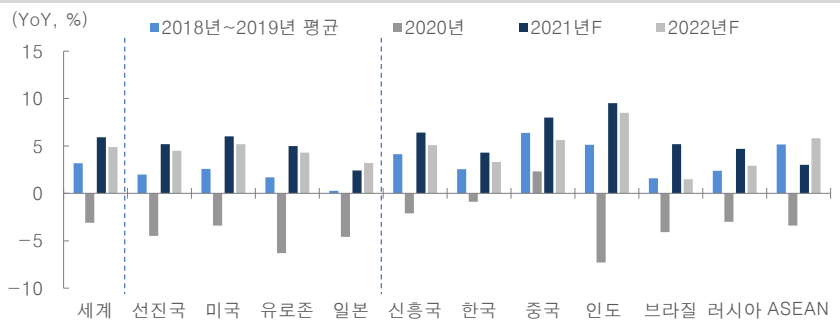
- 백신 보급, 치료제 개발로 일상으로 점차 복귀하면서 소비축이 재화에서 서비스로 점차 전환. 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성은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는 경제금융시장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감염병과 기후변화가 경제 리스크로 부각되면서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수요 확대.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존 핵심 경제활동이 온라인 플랫폼 및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전환 속도를 가속화

2022년 2분기부터 공급망 교란 해소 본격화, 인플레이션 상승폭 둔화 예상

- 백신 보급 확대, 치료제 개발 등으로 아시아 주요국 생산이 회복되고 글로벌 수요가 점차 둔화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해소됨에 따라 공급망 교란은 2022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완화
- 미국 CPI 상승률은 4분기를 정점으로 피크아웃 하겠으나, 2022년 1분기까지 높은 수준 유지. 2분기부터 공급 병목 완화, 유가 급등 등 일시적인 물가 상방 요인이 점차 해소되고 거시 효과 영향으로 상승폭 축소. 하반기 2% 후반~3% 초반 CPI상승률 예상

미 달러화는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유로존간 통화정책 차별화로 내년 상반기 강세 예상, 이후 미국-비미국 간 경기 격차 축소,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가 점차 환율에 반영되면서 타 통화대비 약세 전망

2018~2022년 국가별 실질 GDP 성장률



자료: IMF,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Fixe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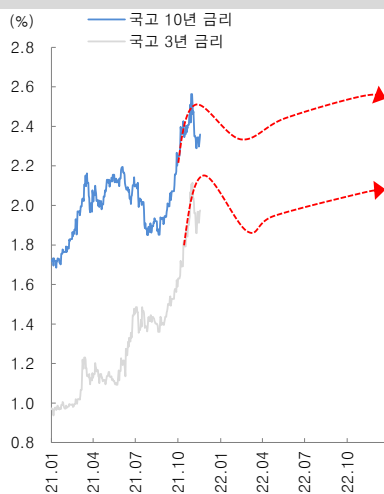
상방이 더 열린 금리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하반기 이후는 정책 정상화 종료 기대, 美 금리 인상 기대는 앞서 반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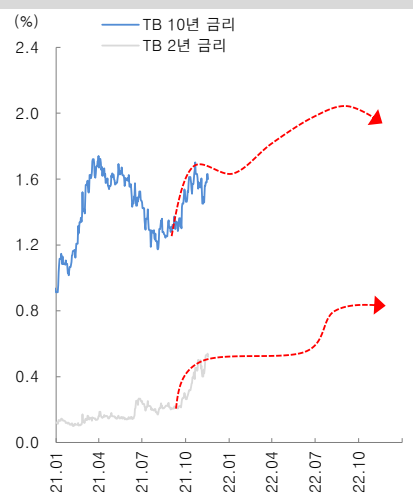
- 2022년 채권 금리는 상방이 더 열린 움직임을 나타낼 전망. 미국의 테이퍼링 개시 및 기준 금리 인상 일정 구체화 등이 본격적으로 금리 동향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물가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연간 금리 상승 압력이 부각될 것
-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금리 상승의 탄력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한국 등 앞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개시한 국가들의 경우 적정금리 논란 등으로 정책 정상화 일정 종료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고,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개시되기 이전에 시장금리의 선반영 과정이 상당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음
- 금융안정을 목적으로 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한은 총재 임기 마감, 대통령 선거 등의 일정에도 꾸준히 지속될 전망(2022년 말 한국 기준금리 1.25% 예상)
- 수익률곡선은 중장기적 시각에서는 플래트닝 압력 우세하며, 정책금리와 연관성이 높은 단기금리의 동향에 따라 커브의 타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한국 국고 3년과 10년 금리 추이와 전망



자료: 금융투자협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TB 2년과 10년 금리 추이와 전망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Global Strategy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안전지대(Safety Zone)를 찾아서

- 글로벌 경제 및 이익 개선 속도 둔화 / 글로벌 유동성 축소 / 실물과 금융시장 괴리 지속/ 재정정책 효과 감소 등 불안정한 투자 환경
- DM/EM간 성장 불균형, 공급망 병목 현상, 신흥국 긴축발작 재연 가능성 등 투자 난이도가 높아질 증시 흐름. '상대적 안전성' 이 높은 투자처가 매력적
-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불안전 농도가 벌어지는 그래데이션. 하반기 점차 개선
- 2022년 최선호 투자대상: 미국(US) / 권역: 선진국(DM), 섹터&테마: 고배당(Dividend), 성장주(IT, 헬스케어, 전기차&2차전지, 우주항공, 메타버스)는 중기적 관점에서 가격 조정시 마다 비중 확대
- 2022년 글로벌 투자환경은 비대면에서 대면 산업으로 옮겨지는 경제 활동 증가가 저소득 계층의 임금 상승, 소비 증가, 기업 투자 확대로 연결되면서 경제 안정 기반이 견고해지는 점은 긍정적. 다만 경제 정상화 및 이익 개선 속도는 2020~2021년과 비교할 때 낮아지는 것은 불가피해 증시 상승을 제약할 수 밖에 없음
-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도 경기회복의 자신감으로 해석되기 이전까지 신흥국 자금 유출을 자극하면서, 신흥국 '긴축 발작' 재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만큼 2022년 한 해 동안 상시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지출을 해왔던 주요국들의 재정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워드 코로나 시행으로 확산여지가 있는 감염병 통제 및 경기 회복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한 만큼 재정여력을 상대적으로 보유한 선진국 선호가 나타날 것
- 신흥국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통제에 정책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보건체계가 단기간 빠르게 개선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신흥국을 바라보는 투자 시각이 빠른 시간내 긍정적으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
- 2022년 글로벌 증시는 2020.3월~2021년 상승장만 경험해 왔던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난이도가 높아질 전망. 고착화될 수 있는 디커플링, 변동성을 대적할 '상대적 안전성' 이 최우선 키워드가 되는 한 해가 될 것. 2021년과 같은 지수 상승 기대를 낮추고 상대적 안전성이라는 매력을 가진 선진국,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대상을 압축할 필요

선진국 및 신흥국 투자 지표

	투자선호도			경제성장률(% YoY)		EPS(% YoY)		PER(배)	PBR(배)	수익률(%)
	부정	중립	선호	2021	2022	2021	2022			
전세계				5.9	4.9	113.6	6.9	18.2	2.8	18.2
선진국				5.2	4.5	50.7	7.1	19.2	2.4	19.6
미국				6.0	5.2	49.1	8.0	21.5	4.3	25.2
유로존				5.0	4.3	46.3	6.4	15.2	2.2	24.7
일본				2.4	3.2	45.4	8.2	14.5	1.3	13.5
신흥국				6.4	5.1	61.9	8.8	13.6	1.9	3.0
중국				8.0	5.6	13.0	17.6	15.4	2.0	-5.8
한국				4.3	3.3	124.2	0.0	10.9	1.1	2.5
인도				9.5	8.5	34.4	18.2	21.8	3.3	27.6
베트남				3.8	6.6	37.4	23.0	16.9	2.7	34.0
브라질				5.2	1.5	150.5	-6.6	9.5	1.7	-11.0
러시아				4.7	2.9	139.8	4.5	6.1	1.0	40.0

자료: 대신증권 Reserch Center

Old와 New의 줄다리기

김소현 sohyun.kim@daishin.com

- 2022년 원자재시장은 Old(화석연료, 금)와 New(신재생에너지, 비트코인)의 줄다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상반기 전통에너지 부문의 공급 부족 지속으로 수급이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하며, 인플레이션 헷지 원자재와 농산물의 가격 상승이 기대
- 하반기에는 물가 진정을 대비해 원자재 단계적 비중 축소를 추천. 에너지 가격은 코로나19 기저 효과 소멸과 공급 확대로 진정될 것이나 화석연료에 대한 구조적 투자 감소로 에너지위기 재발 가능성이 존재. 신재생에너지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할 천연가스과 백금/팔라듐에 대한 관심이 유효
- 중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 구조 변화로 수혜를 받을 비철금속에 대한 관심이 필요. 다만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차질 해소는 단기 가격 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섹터	상품	투자 선호도			주요 투자 전략
		-	=	+	
에너지	• 원유		●		국제유가 Range 를 배럴당 65~90 달러로 전망 상반기 국제유가는 워드코로나 효과와 겨울철 난방 시즌에 따른 수요 증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 높다고 판단. 이후 원유수요의 완만한 회복을 예상하는 가운데 공급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 OPEC+의 감산 공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셰일생산의 점진적 증대를 기대. 하지만 중동정책의 변화는 유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천연가스		●		천연가스 가격의 경우에도 상고하저의 경로를 보일 것으로 예상 단기적으로 천연가스 재고가 역사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겨울철 난방 시즌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 하반기 이후 계절적 수요 효과 소멸과 러시아의 공급 확대로 하향안정화될 것. 다만, 신재생에너지로의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천연가스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안정화시키는 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
귀금속	• 금			●	금 가격 Range 를 온스당 1,650~1,950 달러로 전망 단기적으로 금과 은으로의 인플레이션 헷지 수요 증대 가능성 높다고 판단. 다만, 비트코인 등 신규 대체자산으로의 자금 분산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 금 장신 수요 및 중앙은행의 금 매입은 금 가격 하방을 지지할 것. 2022년 하반기 이후 물가 진정을 대비해 단계적 비중 축소를 추천
	• 백금 • 팔라듐			●	타이트한 수급 환경 지속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자 추천. 내연기관차 판매 증대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는 백금과 팔라듐 가격 상승 요인
비철 금속	• 구리 • 알루미늄 • 니켈	●			2022년 비철금속 시장의 가격 모멘텀은 약할 것으로 예상 상반기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하반기 광산국의 공급확대가 맞물려 추가 조정 가능성 존재. 또한, 중국 정부는 비철금속 시장에 대한 개입을 지속할 수 있을 것. 하지만 비철금속의 추세적 하락을 예상하지 않는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확대와 중국 경기 하방 지지를 위한 정책을 기대하기 때문.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특히 중국의 탈탄소화정책으로 공급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중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 구조 변화로 수혜를 받을 구리와 니켈에 대한 관심 필요
농산물	• 옥수수 • 소맥 • 대두			●	농산물 내 소맥 투자를 선호. 소맥 가격 상승 지속 시 옥수수와 대두의 동조화 가능성 존재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비료가격 상승이 소맥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라 니냐에 따른 곡물 생산 차질 가능성도 농산물가격 상승을 지지하며, 원자재 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부진했던 농산물로의 투자자금 유입 기대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022년 Daishin House View

: 글로벌 경제는 성장 속도 둔화되나 성장 지속, 증시는 상저하고의 흐름 전망

[Summary]

- 2022년 글로벌 경제는 성장속도는 둔화되나 성장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며, 선진국과 신흥국의 회복세는 차별적인 흐름을 나타낼 전망
- 미국은 서비스 소비 확대와 재고 축적 수요에 따라 경기 확장세를 지속하겠지만, 통화정책 정상화와 재정 효과 축소에 따른 가계 소비여력 위축으로 성장폭 둔화 예상
- 중국은 정책의 중심이 성장에서 분배로 이동하며, 5%대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 시진핑 주석 3기 연임을 앞두고 경기 하방을 지지하기 위한 재정 및 통화정책 강화 기대
- 한국은 G2의 성장폭 둔화와 높은 기저에 따른 수출 증가율 둔화가 예상되나, 위드 코로나에 따른 서비스 소비 확대와 설비/건설투자 확대로 3.1%의 성장세 기록 전망
- 2022년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금리상승, 소비여력 축소, 경제성장률 둔화 및 기업이익 전망치의 하향 조정 가능성으로 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
- 2022년 KOSPI 예상 지수대는 2,610pt~3,330pt로, 2022년 1분기 중 저점을 통과하여 전 고점 수준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전개할 전망
- KOSPI 상승 반전의 트리거는 물류병목현상의 완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 감소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의 상승 반전이 될 것으로 예상
- 2022년 투자 유망 섹터는 1)구조적인 성장이 담보된 산업, 2)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 완화로 생산 및 판매가 회복 예상되는 자동차 산업, 3)반도체 경기 하락 사이클 조기 종료에 따른 반도체 업종, 4)위드 코로나 및 정부의 경기부양(대선정국)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수 소비주로 예상
- 구조적 성장이 담보된 산업은 2차전지, 헬스케어, 인터넷 업종으로 추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과 유한양행, 그리고 NAVER를 선정
- 공급병목현상 완화로 수출 모멘텀이 예상되는 현대차와 반도체 업황 하락 사이클 조기 종료에 따른 수혜종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투자유망종목으로 선정
- 위드 코로나와 소비경기 활성화에 따른 수혜종목으로는 호텔신라와 F&F, 그리고 K-Contents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대표종목으로 스튜디오드래곤을 추천함

2022년 Top Picks 9

- 구조적 성장주 : 이익성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 규제 리스크, 밸류에이션 조정, 매출 소화과정은 비중확대 기회
- 수출주 :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 완화 국면에서 수혜 기대. 다만, 반도체 사이클과 경기불안 심리와 병목현상 완화 시점을 감안할 때 22년 1분기 중 비중확대 기회가 올 것으로 전망
- 내수소비주 : 2022년 상반기 중 소비/이익 모멘텀 강화 및 추가 개선 가능(위드 코로나 수혜). 한국 대통령 선거(22년 3월 9일) 앞두고 경기부양 정책 강화 기대

2022년 Top picks 9

	업종	Code	기업명	투자포인트
구조적 성장주	2차전지	A247540	에코프로비엠	전기차 판매증가와 함께 글로벌 배터리 시장 규모 연평균 20% 이상 성장 전망 2026년 양극재 생산량 48만톤 기준 매출액 11조원으로 10배 가까운 성장 가능
	인터넷	A035420	NAVER	네이버 주요 서비스는 성과형 광고, 브랜드스토어, 네이버페이 제휴물 확대가 추가 성장 견인. 웹툰, 제페토 등 콘텐츠 글로벌화에 따른 매출 성장 기여 본격화
	제약/ 바이오	A000100	유한양행	레이저티닙 FDA 조건부 허가 획득 및 하반기 미국 출시에 따라 기술로 수익 이익 기여 본격화 국내 개발 신약 파이프라인 중 최초 글로벌 블록버스터 등극 기대
수출주	반도체	A005930	삼성전자	견조한 메모리/비메모리 수으로 장기적 성장 모멘텀 유지 전망. 2021년 4분기 및 2022년 상반기 메모리 다운사이클로 가격 하락세 예상하나 공급사 재고 낮고 수요 견조해 사이클 단기에 그칠 것
	반도체	A000660	SK하이닉스	인텔 NAND 사업부 인수 연내 마무리 예정으로 향후 NAND 사업부 큰 폭 실적 개선 기대. DRAM 반도체 가격 2022년 상반기까지 하락 예상되나 2022년 하반기 부품 공급 부족 완화에 따른 펜트업 수요 발생 전망
	자동차	A005380	현대차	반도체 공급부족 완화로 점진적인 판매 개선을 통해 실적 대폭 개선 기대 자율주행, BEV로 대변되는 모빌리티 성장 비전 공개를 통해 밸류에이션 확장 가능
내수 소비주	의류	A383220	F&F	국내 뿐 아니라 중국에서 고성장이며 손익 레벨이 크게 상승. 마진이 높은 중국 수출 매출이 크게 늘면서 영업이익률이 30%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 중국 출점이 당분간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 되어 2022년까지 고성장, valuation re-rating 지속 전망
	미디어	A253450	스튜디오드래곤	22년 제작편수는 36편으로 21년 대비 +7편, +33% 증가. 22년 하반기에는 미국에서 직접 제작한 작품에 대한 매출도 발생. 매출 +22% yoy, 영업이익 +28% yoy 전망
	호텔/ 레저	A008770	호텔신라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되었던 해외 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해외 소비 채널인 면세점 업황 개선 전망. 중국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지만 이는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어 현재는 오히려 해외 여행 재개에 의한 소비 증가에 초점을 맞춘 투자 전략이 적절한 상황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